

“ 두려워하지 말라 ”

■ 이종윤 원로목사

전지 ·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차례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네 나라 왕의 역습에 공포와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네 군인들에게 줄 급료)이라"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그랄 왕에게 빼앗겼을 때도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야곱에게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복이 되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흥해 앞에서 바로와 그 군대의 추격이 올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에서 구원자가 되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진퇴양난의 국가적 위기와 오해와 편견에 묻혀 변명할 길 없는 개인의 위기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를 믿기만 하라"하신다.

그분은 불꽃같은 눈을 가지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 잃어버린 것, 잘못 된 것, 충성한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으로 자기를 믿는 자를 용서하신다. 그 입은 날 선 검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죄를 쫓개는 날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 역사와 개인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그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인 7별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오늘도 일하신다. 사도 요한은 마침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경외"가 있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하신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176명의 선원들은 함께 타고 가는 "사도 바울"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들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5천만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이시고 그 분이 키를 잡고 계시니 "바람까지도 잠잠하라" 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초청하여 길 가시는 도중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곧 일어나거늘" 하신 기적이 일어났다. 절망 중에도 믿기만 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도 일으키셨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뉘새가 난다고 했으나 옮겨 놓는 偕行一致의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알게 되고 보게 된다 하신다. 믿되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볼 수 있기를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2017년 9월 23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회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는 올해 첫 번째 헌신예배로서 스테반회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서울교회 안수집사 직분자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스테반회의 헌신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대이동시기에 오고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고, 일가친척 만남의 시간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계기로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0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media.iseoulchurch.or.kr/upload/20220130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 | | |
|------------------------|--|---|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 | |
|--|--|--|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  |
| |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 주현절 신앙 ”

■ 요 2:1-11

주현절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금년 1월 6일에서 3월 1일까지를 주현절로 지키고 3월 2일을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로 지킵니다. 이 기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적은 주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의 가나 마을의 혼인 잔치 집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1. 선구자를 통한 증언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 하는가 하면, 세례를 베풀 때 들리진 말씀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언하였노라'(1:34)고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며 세례를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구주이심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곳은 회개와 성찰을 통한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는 자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간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탐욕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탐욕이 부패한 사회구조를 만들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악이 끝없는 재앙을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더 주심시오라'고 구하기에 앞서 '있는 것을 나눌 의로운 세상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찰과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곁으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2. 스스로 나타내시는 주님

주님은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상징적 사건(sign)'을 의미합니다. 물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이 율법규례를 지키기 위해 가정마다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었고, 율법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결케 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가 당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첫 표적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일의 의미를 마지막 밤에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결예식을 위한 물을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이제 율법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예수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신 것이 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오셨고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 하심을 첫 표적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3. 우리의 반응은?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표적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요2장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11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22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23절) 한결같이 '믿었고, 믿었고,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요3:15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이어지는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우리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부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영적 정체성을 과감하게 공개하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사람에 의해 세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 시 간 | 인 도 | 기 도 |
|-----------|---------|--------|
| Time | Prsider | Prayer |
| I 오전 9시 | 안용근 목사 | 차도훈 장로 |
| II 오전 11시 | 전재홍 목사 | 이관규 장로 |
| III 오후 2시 | 조원영 목사 | 조원영 목사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99: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3(주현절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61(19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요 2:1-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주현절 신앙”...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259(19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스데반 헌신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백도환 집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6:1-2 인 도 자
 찬 송 216(356) 다 함 께
 기 도 김은석 집사
 특별찬양 스테반임역원
 성 경 행 21:7-14 김영희 집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전도자 집사 빌립” ... 설 교 자
 * 찬 송 33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 인도: 안용근 목사
 II부 오후 7시 ·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오가연 권사 II부: 권소희 권사
 성 경 행 14:19-2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이 믿음에 머물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4시 30분 |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 벽 기 도 회 | | 오전 5시 30분(월 - 토) | 본당 |

교 회 소 식

☛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세례식 신청** - 2월 세례(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2월 20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2월 6일(주일)
- 세례 교육 : 2월 13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2월 13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일예배 | 새벽기도 |
|----------|------|---------|-------|--------|
| 1,676명 | 573명 | 2,249명 | 415명 | 1,950명 |

🌳 기회를 선용하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지혜요 힘이다. 지나간 다음에 애절한 탄식을 하는 것보다 주어진 때에 오용하거나 남용치 말고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축복의 기회를 선용해야겠다. 소득이 늘어간다고 사치에 취해서는 안 되며 명성이 높아 가도 교만에 취해서도 안 되고 정권을 잡아도 권력에 취해서는 안 된다. 축복에 취하다 보면 실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봉사할 기회도 선용해야겠다.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는 그를 헐기 전에 그를 돕는 길을 찾는 것이 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의 할 일이다.

용서할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기 전에 이 때를 용서의 기회로 만들 수는 없겠는가?

“주여! 기회를 잃는 것은 곧 영원을 잃는 것인가 하옵니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 | |
|---------|--|
|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
|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
|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